**중국의 동북아 전략과 한중 협력의 의미**

**왕쥔셩(王俊生) 중국사회과학원 아태세계전략연구원**

중국의 주변지역 안보에 있어서 동북아 지역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정치, 경제 중심이 모두 다 이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또, 인구도 이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둘째, 미국, 일본, 러시아 등의 강대국 간 이익이 이 지역에서 교차하고 있으며, 이들 간 권력 경쟁도 이 지역에서 가장 돋보이고 있다. 여기서의 이익이란 전략적,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모두 포함한다. 셋째, 중국의 핵심이익과 관련된 문제들이 이 지역에 존재하고 있다. 그것들은 양안관계, 한반도 문제, 조어도 문제 등이다.

따라서 동북아 지역은 중국의 주변지역 안보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 결과 중국 정부는 이 지역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시진핑 주석은 두 차례의 단독 외국 방문을 진행시켰다. 그것은 7월 3-4일에 이루어진 시진핑 주석의 한국 단독 방문, 8월 21-22일에 이루어진 몽골 단독 방문을 들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한국과 몽골은 모두 동북아 지역에 위치해 있다.

현재 중국이 동북아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략은 평화구축과 안정적 환경 조성이다. 이 전략은 다른 지역, 즉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중앙아시아에 대한 중국의 전략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보수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을 갖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미국 요인이 가장 돋보이기 때문이다. 중국 주변에 위치한 미군은 주로 이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둘째, 중일경쟁은 이미 구조적 갈등 국면이 되었기 때문이다. 셋째, 한반도 정세는 복잡할 뿐만 아니라, 극도의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중국의 이 지역에서의 더 높은 수준의 전략목표 추구를 제약하고 있다.

**중국이 향후 취할 동북아 지역에서의 전략과 구체적 정책**

중국의 새로운 주변국 외교에 있어서의 요구사항과 지금까지 시진핑 정부가 보인 외교적 특징을 종합한다면, 다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중국은 향후에도 동북아 지역에서 적어도 단기간 내에는 여전히 “안정적 국면 **유지**”를 주요 내용으로 할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동북아 지역에서의 전략은 “안정적 국면의 **경영**”으로 전환할 것이다.

구체적 정책으로는, 국제적 범위 내에서 주변지역 안보 전략을 주로 다섯 가지 방면에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실행할 것이다. 그것은 1)제도적 매커니즘 구축, 2)다층적 소통창구 건설, 3)경제 등의 영역에 있어 공통의 이익 형성, 4)상호 타협 촉진, 5)안보이익 충돌 관리를 들 수 있다. 동북아 지역을 중국의 기타 주변지역인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중앙아시아와 비교하면, 다자 제도 매커니즘과 다층적 소통 창구 측면에서 낙후되어 있다.

따라서 중국의 향후 동북아 안보에 대한 구체적 정책은 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시작해야 한다. 첫째, 경제 등 공통 이익의 형성, 상호 타협, 안보이익 충돌 관리 방면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더욱 건실한 방향으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다자제도와 다층적 소통창구 건설이 부족한 만큼 이 부분을 보완하는 조치가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통 이익의 형성 부문에 있어 올해 시진핑 주석은 러시아, 한국, 몽골 방문 시 새로운 성과를 얻어냈다. 중국은 이 방면에 있어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다음 단계로서 중국은 한중자유무역협정(FTA) 및 한중일 경제협력 등을 계속해서 추진해나가야 한다.

상호 타협 부문을 살펴보자. 새로이 부상 중인 강대국으로서 중국은 외부와의 타협에 있어 점차 어려움을 경험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 동북아 지역의 상황은 구조적 문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호타협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 중국이 신흥 강대국으로서 계속해서 부상하고 있다는 점과, 동북아 지역의 현실을 보았을 때 어느 정도의 전략적 인내는 이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임에 틀림없다. 이를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이 요구된다. 첫째, 총괄적인 국내정책을 세워 여론을 인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 안전위원회 기능의 실제적인 실행과 강화가 요구되는 바이다. 둘째, 위기관리에 대한 관련 조직을 설립해야 하며, 이로써 위기가 확대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한다.

앞서 동북아 지역에서는 다자제도와 다층적 소통창구 건설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부족하다고 서술한 바 있다. 먼저 다자제도 매커니즘 건설에 대해 논하자면, 동북아 지역에는 이를 위한 임시적 조건조차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첫째, 중국은 동북아 지역 국가들이 많이 참석해왔던 공식 조직 및 비공식 조직을 더욱더 중시해야 한다. 그 예로써 샹그리라 대화, 동아시아 정상회담 등을 들 수 있다. 중국은 스스로의 실력과 영향력을 통해 이 지역의 이익 수호에 더욱 이바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둘째, 가능하면 6자 회담을 가동해야 한다. 6자 회담은 북한 핵무기 포기라는 목적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다자 매커니즘의 초기 형태로 기능할 수 있다.

더불어 다자 대화에 있어, 중국은 관련국가와의 관계에 있어 “두 개의 머리 부분은 강하나, 가운데 부분이 약하다(两头强、中间弱)”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것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즉, 정부 간 대화와 민간 교류(관광 등)는 비교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싱크탱크 간의 대화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선 국가 간 싱크탱크 대화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각 종류 별 삼자, 또는 다자 싱크탱크 대화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한중 안보 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세 가지 분야**

한국과 중국 간 안보 협력은 우선 세 가지 커다란 국면에서 그 필요성이 존재한다. 첫째, 양국 안보 협력은 양국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내실화에 필요한 중요한 단계이다. 중국과 주변국가들과의 관계 중, 한중 사이의 역사적, 그리고 인문적 관계가 가장 밀접하다고 할 수 있다. 무역과 경제 방면에 있어서도 서로 높은 의존도를 보이는데다가, 그 형세는 지속적이고도 신속하게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오랜 기간 한중 안보 관계는 지속적으로 양국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해 왔다. 이에 올해에 한중 양국의 국방부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핫라인을 열기로 했다는 것은 좋은 신호이다. 양국은 이를 계기로 서로 유의미한 군사 정보, 군사 방문, 연합 군사 훈련 등의 교류 및 진행에 있어 많은 소통을 해야 할 것이다. 오랜 기간 동안, 중국은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해 많은 불만을 가져왔고, 한국 역시 북중 관계에 대해서 그러하였다. 그러므로 한중 양국 간 안보협력이 추진되지 못한다면, 양국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역시 더 이상의 내실화가 추진되기 어렵다. 반대로 만약 양국 간 안보협력 관계가 진일보 한다면, 한중관계 역시 새로운 단계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한중 안보협력의 필요성은 한반도 정세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기된다. 한반도의 계속되는 불안정 국면은 한중 양국의 국가이익에 큰 손실을 주고 있다. 북한 문제의 해결은 예를 들자면 북한이 국제적 고립상태에서 벗어나 국가 안보를 보장받고, 정권의 안보를 위해 경제를 발전시키며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국제사회, 특히 미국과 중국 양국 간의 협력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 하지만, 미국과 한반도 사이의 물리적 거리가 상당히 먼데다가, 한반도 정세의 적당한 긴장 국면이 동북아 지역에서의 미국의 군사적 이익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미중 협력은 더 이상 진일보하기가 힘들다. 한국은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중요한 동맹국이다. 그러한 자격으로 한국은 미국과 중국 간 실제적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진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한국과 미국 중국은 모두 힘을 합쳐 북한에 압력을 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한 합리적 조치에 대해서도 행동을 일치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동북아 안보의 전체 국면에서 보았을 때에도 한중 안보협력의 중요성은 제기된다. 동북아 지역에는 중국, 한국, 북한, 일본, 러시아, 몽골이라는 여섯 개의 국가가 존재한다. 한국은 특히 동북아 지역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반도 문제, 한일문제 등 한국에 있어 중요한 문제들이 모두 동북아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한국이 전통적으로 구사해온 “4강 외교”인 대미외교, 대중외교, 대러외교, 대일외교 모두가 동북아 지역에서 전개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중국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도,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양안관계, 한반도 문제, 조어도 문제 등이 모두 동북아 지역에서 발생한다. 또 중국의 정치적, 경제적 중심 지역은 모두 동북아 지역에 위치하며 인도 또한 집중되어 있다. 미국, 일본, 러시아 등의 강대국 간 이익이 이 지역에서 교차하고 있으며, 이들 간 권력 경쟁도 이 지역에서 가장 돋보이고 있다.

이렇듯 동북아 지역은 한국과 중국의 여러 종류의 핵심적인 국가 이익과 관련되었을 뿐만 아니라, 양국이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이익이 중첩된 분야도 많다. 한국과 중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국가이다. 우선 러시아는 전략적 중심을 유럽으로 정하였고, 일본은 잘못된 역사관을 가지고 있으며, 북한은 핵문제로 인해서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었고, 몽골의 종합국력은 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지역의 이익을 수호하는 데에 있어, 한국과 중국의 전략적 거점으로서의 역할은 점차 돋보일 것이다.